



1  
중앙아시아

## 중양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 - 개관 및 전망

세르게이 라자레브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장

중양아시아는 고대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실크로드 복단이 관통하는 이 지역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선사시대부터 이슬람 시대를 거쳐 후세에까지 이어져온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간직한 유적지와 문화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수세기 동안 이어온 무형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그들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주요 수단이며, 동시에 독특한 구전 및 음악 전통을 보유한 중양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되고 있다.

1991년 독립 이후 중양아시아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과정은 재정 지원, 전문 지식, 유산 관리 등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

독립과 함께 나타난 변화의 여파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왔다. 구소련 시절에는 문화 부문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문화의 복원과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목록 및 보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 국제 및 지역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교류 등 관련 분야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 정체성 확립의 욕구와 역사의식의 성장은 중양아시아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승지역 관리,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통예술 및 공예품 개발은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중양아시아 국가들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유네스코는 중양아시아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시범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다.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일본신탁기금(FIT)과의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 지역의 문화 공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샤쉬마콤 음악(중양아시아의 고전음악 전통), 키르기스스탄의 키르기스 서사예인(소리꾼) 아킨의 기예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이들 프로젝트 덕분에 구전, 음악, 전통공예의 보호 및 목록화 작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었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주최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증진을 위한 제1차 중양아시아 지역회의가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전문가들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방법의 모범사례를 분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 회의는 그 당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던 중양아시아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각 국가의 국내법 체계에 국제 규범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보이순 회의의 권고사항에 따라 2009년 2월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에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훈련 워크숍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표는 목록작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성 방식의 개발이었다. 이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의 현황 및 제도적 기반을 비롯한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할 수 있었다. 워크숍 개최 후 중양아시아 국가들은 이 분야에서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중양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 및 네트워킹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 3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2011년 7월 타지키스탄의 두산베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소지역 네트워크 회의가 개최되었고, 2010년 11월 서울에서는 중양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중양아시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기타 유네스코 기관 및 카테고리 2 기구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중양아시아 지역의 유산은 '보이순 지역의 문화 공간(우즈베키스탄, 2011)', '샤쉬마콤 음악(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2003)', '키르기스 서사예인 아킨의 기예(키르기스스탄, 2003)', '나브루즈 축제(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파키스탄, 터키, 2009)', '카타 아술라(우즈베키스탄, 2009)'의 총 다섯 종목이다. 그러나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에 등재된 종목은 아직 없다.

2010년과 2011년에 알마티와 타슈켄트에 위치한 유네스코사무소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및 공예 개발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타라스(Talas)와 오쉬(Osh)에서도 두 차례의 목록작성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의 주된 목적은 목록작성과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몇몇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키르기스스탄의 국립 성지(聖地) '마나스 오르도(Manas Ordo)'에서 목록화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누쿠스(Nukus)시에서는 현존하는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의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에 관한 시범 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표준에 맞추어 우즈베키스탄과 카라칼파크스탄 전문가를 훈련하고, 중요 무형문화유산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공동체, 정부단체 및 국제기구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워크숍에 이어 카라칼파크스탄 14개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현장 훈련이 1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살아있는 음악유산에 대한 설문조사, 기록, 수집된 자료의 분류와 보관의 훈련을 통해 지역 전문가의 목록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성공사례는 유네스코-한국 신탁기금 지원으로 지난 2년 간 이행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창조 산업 개발과 공예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전통 예술가의 기술을 재현하고 보호함으로써 전통지식과 기술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공예 시장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훈련과 홍보 활동은 특히 여성 공예가들에게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중앙아시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 분야를 전담하는 기관 내지 정통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협약 이행의 핵심 개념이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협약에 의해 형성된 국제적 협력 기회와 메커니즘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회원국의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2013년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와 타슈켄트사무소는 노르웨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추가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협약 이행, 공동체 기반의 목록작성 작업, 무형문화유산의 긴급목록 등재에 대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지만 일부 워크숍은 인근 국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목록작성 및 보호 조치 마련 등 협약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뿐만 아니라 협약에 의해 구축된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혜택을 받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협약 이행에 있어 국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문화 분야의 법과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현행법이 최근의 경제 및 산업 발전 양상과 그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유네스코 협약 등 여러 국제법을 비준하고는 있지만 문화 분야, 특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 및 활용법을 개정하고, 무형문화유산의 해석에 관한 규범들을 검토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표현물과 문화공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조사를 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네스코는 여러 국가가 함께 공동 등재를 추진할 것을 독려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즈베키스탄은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심사에 앞서 등재신청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타지키스탄과 함께 양국에 전해 내려오는 샤희마콤 음악을 단일 국가 등재가 아닌 공동 등재하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소유권, 활용 또는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협약 이행의 기본 틀 속에서 소지역 차원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되는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유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가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며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소지역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유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할 때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는 전통문화의 생존에 핵심 요소이자 문화, 정체성, 사회적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비준을 통해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2011년 11월 9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이 비준서를 기탁하고 나면 중앙아시아에는 협약 가입국이 4개로 늘어나게 되며, 이들 국가는 협약 이행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망이 매우 밝아졌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 기회를 빌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창조산업 개발과 공예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300,000달러를 기부한 유네스코-한국 신탁기금과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후원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